

「三代」考

金 聖 基
(敎養課程部)

〈요 약〉

소설의 이해는 작품 구조와 사회의식의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염상섭의 소설 '三代'에서는 서울의 한 중산계급의 집안을 통하여 복잡다기한 당시 사회 현실에서 생겨났던 모든 갈등이 결국은 '생활'이라는 구심점으로 정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것은 논리를 넘어서 조화를 지향하고, 조화의 頂點에 생활은 위치한다. 빛나간 기독교인이 진전한 생활인으로 돌아올 때, 파격한 사회주의자가 의깃한 생활인으로 돌아올 때 '三代'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 '三代'의 구조는 '대립→혼란→수습'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전개를 이끌어 가는 방향과 힘은 '혼란하던 당시 사회사상의 지양·통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구심점에서 유래하고 있다. '三代'의 이해는 작품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의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A Study of Sam-Dae (Three Generations)

Kim, Sung-Ki
Dept. of General Education

〈Abstract〉

The novel should be understood on the basis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structure of the novel and the social consciousness. Through the story of a middle-class family, the novel Sam-Dae (written by Yeom Sang-Seop) shows that all the conflicts coming from the reality of the author's contemporary society are reordered according to the centripetal point, 'life'. It transcends logic, directing towards harmony, and on the summit of the harmony there is 'life'. When a corrupt Christian returns to 'life' and when the radical socialist becomes a practical person, the novel comes to an end. The plot of the novel consists of three stages—confrontation, confusion, and then solution; the driving force comes not from the sublation and unification of the complicated idea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but from the centripetal point, that is, 'life'. The novel should be comprehended through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social consciousnes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the novel.

I. 머리말

소설의 이해가 작품구조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와 소설의 이해는 사회 의식의 검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는 같은 작품을 두고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데 그들은 모

두 그 나름의 논리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다. 전자는 문학작품은 유기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무엇에 종속된 것이 아니므로 구조를 분석하지 않는 문학 연구는 믿을수 없다고 주장하며, 후자는 사회의식을 살피지 않고 작품 구조를 분석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형식만을 다루는 것이라고 맞선다. 그렇다고 두 관점의 선부른 결충이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은 아니며 오히려 두 관점이 지니는 장점을 死藏시키고, 단점만을 표면에 드러내어 작품의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작품 구조는 사회의식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회의식은 작품 구조에서 문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립을 止揚한 문학 연구의 원론적인 방법이 확립되지 못한 현재로서는 圖式的인 결충이 아닌 작품 구조와 사회의식의 상호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작품 하나하나의 성격을 따라 작품을 이해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즉 ‘작품이 무엇을 말하는가⁽¹⁾’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원론의 확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II. 既存評價의 검토

廉想涉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三代’는 1931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9월 17일까지 朝鮮日報에 연재되었고, 1947년에 단행본(을유문화사版)으로 발간되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현대소설중 가장 많은 논의를 받아온 작품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三代’에 대한 既存評價는 대개, ‘三代’가 우리의 현대문학사에서 의미를 가지고 위치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가 하는 관점에서, 작품이 말해지는 내용에 관한 관심 보다는 문학사에서의 肯定과 否定의 裁斷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하겠다.

우선 다수의 論者들이 취하는 긍정적 견해를 본다.

廉武雄은, ‘三代’는 한국 新文學이 小說의 방법으로 도달한 가장 높은 수준의 작품⁽²⁾이라고 하였고, 金永秀는 “자언주의적 사실주의 작가가 시도하였던 디테일한 묘사력으로 강력한 否定精神과 세대간의 안력을 導入思想(과학·사회학)을 橫으로 가지면서 縱으로 차체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三代’는 오늘날에도 보기 드문 사회소설⁽³⁾이라고 하였다.

김현은, “이작품(三代)은 민족주의자 보수주의자가 본 1930年代의 한국 사회를 문학적으로 뛰어난게 형상화 하고, 당대의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 분석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30代에 이르러서 비로소 문학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드러내는 自己表現體로 바뀌어졌음을 보여주는데 있다.”⁽⁴⁾고 하였다.

金炳翼은, “(三代를) 當代의 朝鮮社會를 克明하게 통찰하고 그 時代의 갈등의 핵심을 捕捉 表現한 成果⁽⁵⁾라 하였고, 또한 “〈三代〉는 당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리얼리즘의 소설미학에 의거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야심적으로 묘사함으로써 30代의 갈등과 암울이란 정신적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자신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의식을 제기시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⁶⁾고 하며 〈三代〉는 예리한 관심과 능숙한 구성력으로 결박한 30代의 한국 사회와 그 정신 풍토를 관찰하고 분해하며 재구성하고 그리하여 어느 다른 시대에서나 잠재해 있는 갈등의 사회학을 전개한 것⁽⁷⁾이라고 하였다.

金鍾均은, “作者는 各異한 世代를 對比시키는데 있어서 觀察이라는 自然主義的方法에서 벗어나 리얼리즘적 觀察의 精神的 調和를 이룩했기 때문에 藝術的 密度가 높은 작품으로 〈三代〉가 날게 되었다.”⁽⁸⁾고 하면서, “現實社會의 움직임을 피로 삼고 中産계급의 삶과 의식을 살로 삼아 1920代의 전체 한국사회를 리심적으로 부각시키기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⁹⁾이므로 우리는 “三代의 내용에서 한국의 近代史를 읽을 수 있다”⁽¹⁰⁾고 하였다.

金允植, 김현의 ‘韓國文學史’에서는

“三代는 그(념상설)의 작품중에서 뿐만 아니라 植民地下의 작품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중의 하나다. 그곳에는 그의 현실관이 가장 잘 드러나 있을 뿐 단아니

(1) 김익환역, 문학의 해석 (서울, 흥성사 1978) p.127 ‘이것(작품)으로 작가는 무엇을 달렸는가’라는 질문은 언제나 불합리한 것이다. 첫째, 우리는 그것을 결코 알 수 없다. 둘째, 작가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 ...합리적인 형식의 질문은 원본이 무엇을 말하는가’이다.

(2) 廉武雄: <植民地의 變貌와 그 限界> 韓國文學 3호(서울, 1966. 3) p.41.

(3) 金永秀: <廉想涉研究> 文耕 19, 20호 합병호(서울: 中央 1966) p.63.

(4) 김현 <植民地時代의 文學> 文學과 知性 5호(서울, 一潮閣, 1971) p.565.

(5) 金炳翼: <리얼리즘의 技法과 精神> 文學思想 창간호 (서울, 1972) p.231.

(6) 金炳翼: <葛藤의 社會學> 「現代韓國文學의 理論」 (서울 1972) p.312.

(7) 金炳翼: 같은 책 p.313.

(8) 金鍾均: 「廉想涉研究」(서울, 고려대 출판부 1974) p.163.

(9) 金鍾均: 같은 책 p.163.

(10) 金鍾均: 같은 책 p.166.

(11) 金允植: 김현: <韓國文學史> 文學과 知性 11호(서울, 一潮閣, 1973) p.240.

라 식민지 치하의 여러 계층의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三代의 소설로서의 흥미는 식민지 현실을 바라보는 각 세대, 한말시대, 개화기시대, 식민지 세대의 세계관을 廉想涉 특유의 눈으로 냉정하게 묘사한 데 있다.”⁽¹²⁾

고 하여 時代를 바라보는 想涉의 눈에 찬사를 보낸다.

洪思重은, “三代’는 祖父가 代表하는 봉건시대와 主人公이 代表하는 現時代와 그리고 이 사이를 연결하는 외나무다리 중턱에 서 있는 主人公의 아버지, 이렇게 세개의 각각 다른 세계를 對比시키는데 있어 觀察이라는 자연주의적 方法으로 부터 逸脫되었기 때문에 티보테가 바라던 ‘觀察의 精神과 創造의 精神과의 調和’를 어느정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며, ‘三代’가 예술적 밀도가 깊은 작품이 된 까닭도 바로 여기 있는 것”⁽¹³⁾이라고 하였다.

金松峴은, “三代를 외국문학과의 영향관계에서 살펴보다도 題材上的 영향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 고유한 風土的 時代의 背景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固守하여 구성되었으며 좀처럼 모방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¹⁴⁾고 하여 ‘三代’의 獨創性을 내세운다. 以上 肯定的 立場을 취하는 여러 의견의 論旨는 當代 朝鮮사회를 克明하게 통찰하여 현실을 어실히 묘사하였으므로 ‘三代’는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 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想涉 자신도 그의 작품 ‘三代’를 두고, “이 작품은 하찮은 힌트(조선일보 시절)에서 구상되었고 전연 3구로 이루어 졌으나, 작자는 독자로부터 많은 비난과 의혹을 받았을 이 만큼 우리 현실에 直한 나의 生活로 묘사되었던 것이다.”(‘金鍾均, 『廉想涉研究』 p.164再引用’)라고 述懐한 것은 이러한 立場을 뒷받침 해 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相反되는 評價를 이끌어내는 否定的 견해의 論旨를 살펴보자.

金宇鍾은 “임상섭의 표현은 主觀性이 排除되었고 묘사과잉의 盲點을 지니고 凡俗의 리얼리즘에 머문다.”⁽¹⁵⁾고 하면서 독자는 그의 작품에서 현실에 대한 거의 아무런 가치판단의 암시도 받은 일이 없다. 이만큼 그의 작품세계는 주제가 빈곤한 것이다.”⁽¹⁶⁾라고 결론을 짓는다.

鄭漢淑은, “〈三代〉는 庶民의 感傷性이 作品全般을 지배하고 있어 그의 사회성이나 歷史性은 매우 不透明해 지고 만 것이다. 社會性과 歷史意識이 具體화된 리얼리즘文學의 可能性을 보여주면서도 작가의 庶民의 感傷性이 引導하는 小市民意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三代’가 지니는 想涉文學의 限界”⁽¹⁶⁾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否定的 立場들은 主題의 빈곤, 혹은 역사의식의 결여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현실에 대한 가치판단의 결여’라는 말로 요약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논의의 결과가 남긴 업적은 1960年代의 후반에 와서 兪상섭의 역량에 대한 재평가와 아울러 ‘三代’는 우리 現代文學史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언급되도록 된 점이다. 그러나 작품자체에 대한 구조 분석과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三代’에서 성공적으로 ‘현실묘사’가 되었다는 관점에 서는 견해는 ‘가치판단이 결여’되었다고 맞서는 견해를 충분히 설득 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와서 김윤식은 <兪상섭의 소설구조>⁽¹⁷⁾라는 논문에서 단편적이거나 작품구조의 분석에서 소설의 내용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本考는 ‘三代’의 작품구조와 사회의식의 상호관계에서 작품이 말해주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작품에 대한 가치판단은 작품이 말해주는 의미가 분명해질 때 스스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I. 構 造

‘三代’는 42개의 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애초 신문에 연재될 때는 ‘제40장’까지로 끝냈었던 것이 단행본으로 발간될 때, ‘제41장’, ‘제42장’이 더해진 것이다.

제1장 <두 친구>에서는 이 소설의 중요인물이 되는 조의관, 덕기, 병화가 첫 머리에 등장한다. 조의관은 서울 증인계층의 전형적인 노인이고, 덕기는 개화기의 부잣집 손자이고, 병화는 이념문제로 그의 아버지와도 절연한 가난한 갑스 뿌이다.

(12) 洪思重: <廉想涉論>, 現代文學 107호 (서울, 1963) p.255.

(13) 金松峴: <三代에 끼친 외국문학의 영향> 現代文學 97호 (서울 1963) p.100.

(14)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서울, 宣明文化社, 1968) pp.143~146.

(15) 金宇鍾: 위의 책 p.152.

(16) 鄭漢淑: 『現代』韓國作家論』(서울, 고려대출판부, 1976)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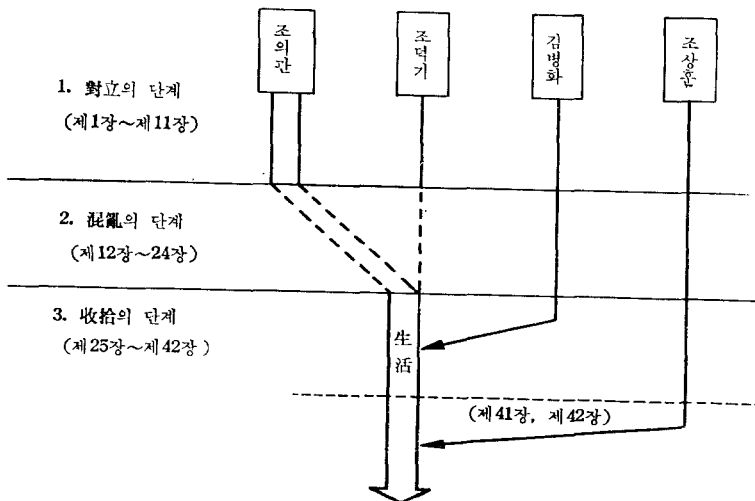
(17) 김윤식: <兪상섭의 소설구조> 『廉想涉』(文學과 知性社, 서울, 1977).

제2장 <홍경애>에서, 술집여급인 홍경애는 덕기 부친인 조상훈의 첩이다. 첫 머리에 이런 상황으로 홍경애를 등장시키는 것은, 조상훈이란 개화기 인텔리가 전개해 갈 성격을 어느정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등장한 조의관, 조상훈, 덕기, 병화 네 사람은 이 소설의 골격을 이루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들이다. 이들 네 인물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한다. 조의관과 조상훈은 大同譜所문제, 제사문제 등으로 심한 갈등을 보여준다. 병화는 기독교인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여준다. 덕기는 덕기대로 홍경애 문제를 놓고 윤리적인 면에서 상훈과 갈등을 나타낸다. 그들은 모두 그들 나름으로 반발하고 갈등을 이룰 만한 이유가 있고 설득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제11장>에서 덕기가 일본으로 떠날 때 까지 계속 유지된다. 그런데 이들 네 인물중 덕기의 경우만은 내세울 만한 논리와 理想이 뚜렷하지 않다. 조의관은 봉건적 保守主義, 조상훈은 기독교, 병화는 사회주의, 그러나 덕기는 이들의 중간에 어정정한 倫理, 서민적 感傷主義라고도 표현될만한 윤리에 집착하여 서 있는 것이다. 그의 性格을 구태여 규정한다면 中立性이라고나 하여야 할 것이다. 제12장 <봉육>에서부터 제24장 <담장>까지는 덕기가 일본에 있어서 등장하지 않는 부분인데 조상훈과 병화, 그리고 병으로 누운 조의관의 看病에는 마음이 없는 庶祖母들 둘러싼 주위인물들이 너도나도 관을 치게 되는 일대 혼란의 場을 연

출한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나름의 理想과 論理로 견디어 오던 조상훈은 이미 완전히 타락한 개화기의 지식인으로 혼란의 渦中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 부분의 난맥상은 독자를 어지럽게 하며, 당시사회의 감추어진 이곳 저곳을 보여준다. 이러한 혼란의 난맥상은 제25장 <전보>에서, 덕기가 조부가 위독하시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풀려서 收拾되기에 이른다. 空疎한 사회주의자 김병화도, 타락한 기독교인 조상훈도 덕기가 덩고 서 있는 生活이라는 더듬돌을 향하여 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三代’는 이렇게 ‘對立’과 ‘混亂’과 ‘收拾’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圖表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는 세 단계의 구분은 덕기가 소설중에 등장하여 활동 하느냐에 의해 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덕기를 완충지대에 둔 조의관, 조상훈, 김병화들의 대립은 덕기가 동경에 건너가고 부재함으로 해서 일대 혼란에 이르고, 다시 덕기가 돌아옴으로 해서 수습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덕기의 수습은 덕기의 능력에 의한다고 보다는 어쩔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對立→混亂→收拾의 진행과정에서 난맥상을 수습으로 이끌어 들이는 힘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다. 대립의 단계에서는 그들 나름의 논리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 하고 대의명분을 내세운다. 대립 단계에서의 충돌, 제8장 <제일충돌> · 제9장 <죽이



충돌>, 제10장 <제삼충돌>은 그들이 논리를 내세워 찾으려는 윤리가 존재하므로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비록 調和된 止揚點을 찾지는 못한다고 하여도 혹은 객관적 타당성은 없다 하여도 그들은 그들 나름의 정당한 理性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理性은 生活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으므로 混亂에 이르게 되며, 이 混亂을 수습하는 것은 덕기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소설 전체의 바닥에 깔려 있는 調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調和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이상세계의 전개는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막연하게 生活해 가노라면 어려운 문제들이 어떻게든 해결 되리라는 낙관론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人間이 지니는 生命力에 대한 종교에 가까운 끈질긴 신뢰이기도 하다. 시대를 變革할 새로운 思想도 현실적으로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는 소박한 生活意識에 대비될 때 무의미하고 空虛한 虛構라는 것을 염상섭은 이미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염상섭에게는 이러한 類의 調和의 倫理觀이 우리 민족의 핏줄 깊은 곳에 깊이 있는 면면한 흐름으로 확신되어 있는 것이다. 염상섭은 끈질긴 이 무엇에 집착한다. ‘三代’를 끌고 가는 것은 調和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시간을 신뢰하는 독심인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求心點이 생활에 바탕을 둔 調和이며, 生活이라는 것을 구심점으로 모든 것을 수습해들이는 힘 그것은 끈질긴 낙관론에 대한 신뢰의에서 달리 구할 도리가 없다.

조의관에서의 생활은 이제 조금 양태가 변질되어 덕기가 중심에서 거머쥔게 된 것이다. 이것이 ‘三代’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회변화에 부대끼면서 작중인물들은 여타튼 살아야 하는 것이다. 생활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허구인 것이다. 모든 것은 생활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상섭은 병화의 사회주의를 변질 시켜 생활에 의해 수습되도록 한다. 그리고 신문 연재에 없던 제41장 <부친의 사건>, 제42장 <백방>의 후속을 단행본에서는 첨가시켜 구성상의 긴밀감을 감소 시키면서까지 생활에 무절제한 조상훈의 패배를 수습해 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三代’의 구조는 다음章에서 살펴 볼 사회 의식의 전개와 무관하지 않다.

IV. 社會意識

소설 ‘三代’가 쓰여진 1930년대 초반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3·1운동 이후 10여년간의 항거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으로 직접적 항거로부터 민족계몽, 혹은 사회개조운동 등 우회된 저항의 길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몇차례의 검거 선봉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사상 바람이 계속 몰아치고 있던 시대이며, 대중은 이미 모든 것을 식민지 통치下의 既定事實로 인정하고 현실에 영합하는 태도가 彌滿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金炳翼은 이러한 시대상황을 ‘여러모로 複雜多岐한 시대’⁽¹⁸⁾라는 用語로 표현하고 있거니와 여기서의 염상섭이 ‘三代’를 통하여 이 ‘複雜多岐한 시대’를 어떤 눈으로 보았던가 하는 점을 살펴본다.

1. 保守主義에의 鄉愁

조의관은 우매한 인습과 전통을 대변하는 봉건적 전형적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自手成家한 재산으로 벼슬을 사고 죽보를 사고, 젊은 처을 들여 앉히고 아들이라도 하나 더 보았으면 하고 기대한다.

그러나 그의 아들 조상훈에게는 ‘돈을 주고 양반을 산다’는 사실은 크나큰 굴욕이고 불만이다.

<돈주고 양반을 사!> 이것이 상훈에게는 굴욕이었다. 그러나 조의관으로서의 생각하면 이때껏 자기가 쓴 돈은 부친이 물려준 천냥에서 범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 아깝지도 않고 先考의 혼령에 내세어도 땀땀하다고 자랑하는 것이다. 저절나면 父祖의 후증도 하게 되는 것인데 있는돈을 들여서 양반되기로 그이말로 이현부도가 아닌가 하는 용망이다⁽¹⁹⁾

조의관에게는 또한 자식을 공부시키는 목적도 매우 뚜렷하다.

“공부가 좋아냐? 집안일이 좋아냐? 나만 눈감으면 이 집속이 어떻게 될지 너도 아무리 어린애다만 생각해 바라 졸업이고 무엇이고 다 단념하고 그 열쇠를 맡아야 한다. 그 열쇠 하나에 네 평생의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 가운이 달렸다. 너는 그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벼계 맡기고 가는 것은 사당과 그 열쇠—두가지 뿐이다. 이때까지 공부를 시킨 것도 그 두가지를 잘 모시고 지키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 두가지를 버

(18) 金炳翼：「現代韓國文學의 理論」서울 1972, p.313.

(19) 廉想涉：「三代」韓國文學全集 3卷, 서울, 民衆書館 1958, p.73.

리고도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승장 내놓고 장사지내는 것이다.”⁽²⁰⁾

祖上을 받든다는 것이 조의관에게는 그토록 중요하다. 조의관이 아들 상훈과 적대하는 것도 사랑과 재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소신에 의한 것이다.

“너희는 예수교인지 난장인지 한다고 조선봉제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나 보더라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막무가 내하다!”⁽²¹⁾

“...도덕이니 박애니구원이니 하면서 제자식 하나 못 가르치는 놈이 임으로만 허울좋은 소리를 떠들던 세상이 잘될듯 싶으나!”⁽²²⁾

“덕기는 아까여덟시가 넘어서 들어와서 제삿날 나다 نن다고 조부에게 한박당 구중을 들고 안에서 재를 울리는 시중을 들고 있다. 일할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魚東肉西니 糞栗梨柿니 하는 걸차부터 가르치기 위하여 꼭 손자를 시키는 것이다.”⁽²³⁾

시대에 역행하는 인습의 대변자 조의관은 결국 피살되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되나 그는 그 고집대로 충실하게 그의 인생을 살고 간 것이며 상점은 조의관이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태도에 호의를 보여준다.

“유서에 쓰인 날짜는 불과 십여일전, 즉 안방으로 들어 오기전에 그 칠중한 가운데에서도 단일을 덤터하여 오 반중에 자주 일어나 영금영금 글고에 매달려서 꺼내고 넣고 하였을 것을 생각하니 덕기는 조부가 가엾고 감격하여 눈물까지 날 것 같다. 조부의 성미와 고루한 사상에 대하여서나 부자간에 그러한 반목하는 것은 덕기로서는 불만이 없지 않으나 자손을 위하여 그렇게 다실라게도 덤터하는 것을 생각하면 고맙기 그지없다.”⁽²⁴⁾

조의관의 고루한 봉건사상은 엄상심의 입장으로 는 그 나름의 충실한 생활이라는 것으로 옹호될 수 있는 것이다.

생활을 무엇보다 앞세우는 想涉의 작가 의식은 女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아주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여자는 맘만 짓고 아이만 기르라는 거냐고 혼리 달 하데마는 세상에는 남짓고 아이를 기를 손(手)이 필요할 것을 어떻게 하나? 남자에게 유망이 생기기 전에는 여자의 가정으로부터 해방이란 관념상 문제가 아닌가? 여자로 하여금 가정을 지키게 할 원칙을 버릴 이유가 어디있나?”⁽²⁵⁾

(20) 같은 책 p.236.

(21) 같은 책 p.22.

(22) 같은 책 p.29.

(23) 같은 책 p.71.

(24) 같은 책 p.249.

(25) 같은 책 p.169.

(26) 鄭漢淑: 위의 책 p.68.

(27) 廉想涉: 위의 책 p.30.

鄭漢淑은, '三代'의 이러한 일면을 지적하여 庶民的 感傷性'⁽²⁶⁾이라고 표현하면서 등장인물의 역사와 사회를 보는 눈을 불투명하게 하고 등장인물을 소시인적 인물로 전락시키고 마는 想涉文學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痛駭한다. 그러나 庶民的 感傷性이라는 한계가 등장인물이 지니는 인간적 한계이며 想涉의 작가의식이 이러한 등장인물을 통하여 당시의 生活를 리얼하게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대여 貶視의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2. 歪曲된 開化思想—基督教

想涉은 조상훈을 봉건사회에서 근대小市民사회로 넘어오는 개화되는 한국의 과도기적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한다.

“나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현실상 앞에 눈이 어두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살아온 시대상과 너희의 시대상의 차이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네 사상과 네 사상이 합쳐되는 소위「제삼제국」을 바라는 것이다. 너희들은 한 걸음 나아갔고 나는 그 만큼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의 시대에서 또 한걸음 다시 나아가면 그때에는 도리어 네시대의 사상, 즉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필요하게 될지 누가 아니? 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찾는 다.”⁽²⁷⁾

그러나 「제삼제국」은 조상훈의 꿈속에 그치고 말며 조상훈의 최고 지식인으로서의 選民意識과 기독교도라는 정식의 뒤에는 허구가 숨어 있다. 조상훈의 선진 의식은 소위 '이태동안이나 미국에 다녀오고 도도한 웅변으로 설교하는 깨끗한 신사'로서의 대중에 대한 同情者에 그칠 뿐 대중과의 절박한 생활의 연대속에서 우리나라는 것이 아니며 조상훈의 기독교 또한 폐쇄된 사회의 정치적으로 좌절된층의 피신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은 조상훈의 성격을 安逸과 우유부단에 해매는 위선자로 특징 지워 간다.

“자기 부친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남에 없는 위선자이거나 악인은 아니다. 이 세상 사람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한 톨도 못되는 만큼 내외의 차

이 밖에 없건만 부친이 어떤 동기로 이었는지—어떤 동기라니 보다도 이삼십년전 시대의 신청년이 봉건사회를 뒷받침로 차버리고 나서려고 허비직거릴때에 누구나 그리하였던 것과 같이 그도 짧은 지사로 나섰던 것이요. 또 그리노라던 정치적으로는 길이 막힌 그들이 모여드는 교단아래 밀려가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 오늘날의 종교 생활의 첫 반길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만일 그가 요새말로 자기 청산을 하고 어떤 시기에 거기에서 발을 빼냈더라면 그가 사상으로도 더 새로운 시대에 나오게 되었을 것이요. 실생활에 있어서도 자기의 성격대로 순조로운 길을 나아가는 동시에 그러한 위선적 이중생활속에서 해배지는 않았을 것이다.⁽²⁸⁾

그래서 조상훈은, “내가 잘한 일이야 없지만孝도 웃사람이 받아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²⁹⁾ 고 불평하면서 조의관에게는 기독교도인 때문으로 異端이 되고, ‘덕기’들에게는 시대의식으로 異端이 되어가며, 술과 여자와 마작의 日常으로 타락하고만 다.

그리고 조상훈을 통하여 想涉에게 파악된 기독교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다. ‘三代’에 묘사된 기독교는 조상훈과 같은 위선자들이 서양사람들의 돈뿐이나 얻어먹고자 하는 종교로 규정된다.

“도무지 교회도 나와버리고 그런데 간섭을 마셨으면 좋을까 아니에요. 밤 열시까지 설교를 하시고 열시가 지나면 술집으로 여기저기 갈데 안갈데 돌아다니시니 그러면 세상이 모르나요. 언제든지 알리고 말 것이요, …(중략)…그것도 거기다가 목숨을 매달고 서양사람들의 돈뿐이나 얻어먹어야 살 형편이면 모르겠지 만…”⁽³⁰⁾

“허지만 그렇다면 당장 학비가 나오지 않을게 아닌가 더구나? 자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입학한 되면 교회속에서 학비라도 끌어내실 작정이실지도 모르지…”⁽³¹⁾

‘三代’에 나타난 이와 같은 기독교觀은 想涉의 종교에 대한 적대의식의 所産이라기보다는 당시 현실에 영합하는 시대풍속의 혼란을 그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現實相은 조상훈의 칩 흥경애의 눈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두어 시간동안에 경애의 눈에 비친 세상은 금시로 변화했다. 조상훈이의 세상이 아니어든 조상훈에게 대한 관찰이 변화했다고 세상까지 돌변해 보이따라는 세상이 우스꽝스럽다 할지 더럽다 할지 재미있고 회랑에

가득하다 할지 형용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 듯 하였다.”⁽³²⁾

“이 애가 다행은 유치원에서 천사같이 나비 춤을 추고 밤에는 술상머리에 앉는구나! 고 생각하니 경애는 속으로 혀를 찼다. 그러나 그것은 이 의평이를 나무라는 것인지 세상을 한탄하는 것인지 또는 자기 자신을 혀를 차는 것인지 자기도 모르겠다.”⁽³³⁾

想涉은 봉건사상의 붕괴가 이미 既定 사실인 현실의 상황에서 뚜렷한 가치관이 定立되지 못한 당시의 과도적 사회상을 그리고자 했고 그 과도적 混沌의 한 모서리에 기독교가 위치하고 조상훈과 그 주변의 인물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3. 社會主義와 生活

김병화를 통해 표현되는 想涉의 사회주의는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1930년경의 사회주의가 당시 자본주의 사회 구조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지니는 것도 아니거니와 김병화의 사회주의는 부친의 기독교에 대한 반발로 선택된 것으로서 그 자체 知的 體系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병화는 독학으로 사회주의를 배웠고, “젊으며 동경바닥에서 일년간 뒹구는 동안에는 생활이 그러니만큼 사상이나 기분이 더욱 과격하여 졌었다.”⁽³⁴⁾ 그러므로 김병화의 사회주의는 현실에 적용되고 현실을 개조 할 수 있는 투철한 체제의 기초를 결여하는 것으로서 필순의 부친과의 대화에서 김병화 스스로의 입을 통해 드러난다.

“오전에 일론서는 무산자 병원에 어느 재산가가 기부를 한다니까 이러니 저러니 문제가 많다가…(중략)…적이 주는 균량을 먹고는 못싸우라는 법이 있나 그따위 조그만 결벽도 역시 小市民性이지”

「그렇지만 문제가 표면에 나타나면 일반 민중의 유치한 의식이 흐려질 것이요. 또 논 내뿜는 사람도 그 겉을 노리고 하는 일이니까 정팩상 안지 않는 것도 옳은 일이지요.」

병화는 비로소 한마디 대꾸를 하였다.

「그야 물론이지만 조선같이 조직적 기반이 없고 부득이 비합법적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런 결벽성이 물론 필요하단 말이야」⁽³⁵⁾

(28) 같은 책 pp.29~30.

(29) 같은 책 p.205.

(30) 같은 책 p.25.

(31) 같은 책 p.36.

(32) 같은 책 p.67.

(33) 같은 책 p.197.

(34) 같은 책 p.37.

(35) 같은 책 p.136.

그러므로 김병화의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결벽은 덕기가 지적인 바와 같이 하나의 편협한 ‘感情’으로 罵倒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네의 투쟁의욕—의욕이라느니 보다도 습관적으로 굳어버린 조그만 감정속에 자네의 그 큰 몸집을 가두어 버리고 쇠를 깨운 것이 나 보기에는 가엾음이...(중략) 융통성없는 조그만 투쟁 감정을 가지고 큰 그릇이 되고 큰 일을 경문한다는 것은 나는 믿을 수 없네...(중략)...자네는 평범한 사교적 우의보다는 동지로서의 우의—동지애를 구한다고 하네마는...(중략)...너무 골이 골살로만 나가기 때문에公私를 구별치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자네가 가정에 대하여 만기를 들고 부자간의 의결까지 한 것도 그런 편협한 감정 때문이지만...(중략)...투쟁은 극복의 전 수단이 아닐세 포용과 감화도 극복의 유산탄탄한 효과는 있는 것일세.”(36)

결국 김병화의 사회주의는 ‘원삼’과의 대화에서는 感情이 앞서는 열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두주먹밖에 아무것도 없지만 돈도 명예도 지체도 종교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구실을 하고 세상일을 하려고 손목만 맞붙들면 무어나 되는 것이요...”(37)

그러나 구체적인 생활에 돌아와 설 때 김병화는 이미 한사람의 변절자에 불과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동지간에 내용은 고사하고 병화가 일본반찬가게를 뺀다는 소문도 아는 사람이 아직은 없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두번부터는 절대로 받들지도 못하게 단언 거절할 작정을 병화는 단단히 하고 있는 판이다.”(38)

김병화의 사회주의는 생활의 바탕을 다지면서 먼후 일을 도모하도록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요컨대 ‘三代’에서 파악되는 사회주의는 서민의 생활을 위하여 서민 존재가치를 지니며 생활의 회생위에 건설하는 사회주의 혁명은 존립될 수 없는 것으로 限界 지위진다. 이러한 관점은 덕기와 필순의 대화에서도 완연히 확인된다.

“[덕기가] 인치점이 있지요. 구차하니 서로 동경하는 것이요, 피차에 배를 출라매고 앉았으니 의견이 틀린다고 말다툼 할 기운도 없어 서로 사래를 알아주는 건가 봐요. 그런 점은 가정적이나 사회적이나 일반일거예요] 덕기는 필순이의 예사롭게하는 이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실이요, 사회운동이나 민족운동이나 확실히 그점에 가서는 일치점이 있지요.]”(39)

(36) 같은 책 pp.167~168.

(37) 같은 책 p.182.

(38) 같은 책 p.267.

(39) 같은 책 p.328.

(40) 같은 책 p.136.

(41) 같은 책 p.168.

(42) 같은 책 pp.89~90.

김병화와 대화할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주의를 내세우는(40) 필순의 아버지도 눈앞을 막아서는 생활에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일개 서민인을 필순의 말을 통해 엿볼 수 있다.

想涉의 사회주의는 서민 생활이 회생되지 않는다는 前提위에서만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4. 理想의 人物型

想涉은 현 시대의 가장 긍정적 인물로 ‘덕기’를 제시한다. 덕기는 냉철한 理智로 조부 조의관代를 이해하려 하며 부친 조상훈의 代를 이해하려 하며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친구 김병화를 이해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면서, 또 그 나름대로의 나날같은 모색한다. 그래서 덕기는 김병화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같은 사람도 자네 옆에 있어서 해 될것은 없네 자네의 伴侶가 되겠다고 머리를 숙이고 간청하는 것은 아닐세마는 나도 내길을 걷노라면 자네들에게 유조할 때도 있고 유조할 일도 없지않으리라는 말일세. 이왕이면 한결을 더 나서서 자네와 한결을 밝지 못하느냐고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건해가 따로있고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는 피하지 못할 단결이 있으니까 결코 비겁하다고 웃지는 못한 것일세.”(41)

라고 하여 그의 생각을 분명히 한다. 想涉이 바라는 새 시대의 청년상은 과격한 저항의 투사가 아니라 덕기처럼 시대를 응시하며 守分하는 겸인 것이다.

“어쨌든 덕기는 무산운동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냉담히 방관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제일선에 나서서 싸울 성격도 아니요 처지도 아니니까 차라리 일 간호출격으로 변호사나 피어서 몇일이나 보낼 좋겠다는 생각이있다. 덮어놓고 크게 되겠다는 공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책상 물림의 뒷방서방님으로 일생을 다치기도 싫었다. 제분수대로는 무어나 하고 싶었다.”(42)

덕기가 분수를 지키면서 자기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그를 둘러싼 生活에서의 調和는 그의 행동의 구실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想涉은 무엇보다도 생활주변과 원만하게 조화된 생활에 거다란 무게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살림이라는 것 식구들의 불행이라는 것을 책임없는 처지에서 원광으로 바라만 보던 것이 별안간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려 듣고 자기

도 그 속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니까 신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책임을 걸머졌어도 자기 힘으로는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데 기본이 더 쪼부터 들고 신산한 생각만 들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⁴³⁾

덕기는 이러한 생활의 문제들을 과도기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근질근질 樂觀과 시간의 힘을 빌어서만 해결될 문제로 파악된다.

“덕기 생각으로는 때는 흘러나가는 것이요, 조부가 돌아가고 세사람, 세살림, 세시대가 바뀌어 들쭉지마는 그것이 일조일척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안 것 같다. …(중략)…변화란 놀이 내 저지가 되었더면 어땠을구… …(중략)…그 살기가 아무 생각 없이 활수종계 돈을 뿌려버리거나 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혼란은 마참가지였을 것이라그 생각하는 것이다.”⁽⁴⁴⁾

그러므로 想涉은 덕기를 통해서 ‘행복은 언제나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실현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망과 노력에서 맛보는 것’⁽⁴⁵⁾이라고 주장하며 過程으로서의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想涉이 묘사하고 있는 덕기의 和解妥協의 태도는 자포 자기의 무기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부딪쳐오는 간통을 受容하여 자기 자신의 고민으로 해소시키면서 점진적 극복을 내다보는 의연한 생활인의 것이다 할 것이다.

V. 맺음말

想涉이 바라보는 複雜多岐한 시대는 아무리 복잡다기 하다고 하더라도 생활이라는 평범한 문제의 바탕을 떠나서는 存立할 수 없는 것이 되며 ‘三代’에서 그는 서울의 한 중산계급 조의관의 집을 통하여 당시 사회 현실의 움직임에서 생겨났던 모든 갈등이 결국은 생활이라는 것을 구심점으로 하여 하나하나 경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論理와 合理을 넘어서 하나의 調和를 지향하고 있고 그 조화의 頂點에 생활은 위치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빛나간 기독교인 조상훈이 타락에서 다시 건전한 生活人으로 참회할 때, 과격한 사회주의자 김병화가 외딴 생활인으로 돌아 왔을 때, ‘三代’는 결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미래지향의 완성된 理想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덕기는

피곤하고 신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의 성장을 대견하게 바라보고 느끼기도 하나 그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가치관에 의한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큰집안의 살림살이(생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과, 생활에 충실하며 부친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유스럽게 살아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인 테두리에 머무는 다음가짐이며 체계있는 인생관에 의한 思考方式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덕기는 늘 조금씩 고민하면서 생활에 매여 있는 것이다.

鄭漢淑은 ‘三代’의 이러한 면에 대해 “조씨 一家의 ‘三代’가 치루는 세대간의 갈등은 당시 사회에 잠재해 있던 시대적인 문제성을 近似하게 照明하였다는 점은 ‘三代’의 문학적 특성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곧 ‘三代’의 우수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⁴⁶⁾ 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무의미하다. 작품의 구조는 사회의식으로만 존재하고 사회의식은 작품구조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시대현실을 근사하게 조명 하였으면서 주제 의식이 결여되었다는 비난은 소설의 주제가 소설의 구조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에 모순 된다. ‘三代’에 있어서의 생활에 중심을 둔 구성 전개와 주제 의식의 결여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사회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므로 성공한 작품이라는 견해와 같이 다분히 감정적 비판에 의한 위험한 판단에 연결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품은 그 자체의 구조로 존재하며 그 구조를 통하여 사회의식은 표현되고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想涉의 의식은 개화의 時流에 편승하지 않고 新知識에의 허영을 만족시켜 편들지 않으며, 오히려 생활이라고 하는 인생 본연의 문제를 떠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생활주변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의식이 식민지 현실을 사는 지식인으로서 올바른 역사적 방향을 지향하고 있느냐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는 本考의 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판단을 유보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보수적·봉건적인 것에 집착하는 想涉의 태도는 한편에서 ‘庶民의 感傷’이라는 공감을 분명히 얻어

(43) 같은 책 p.347.

(44) 같은 책 p.384.

(45) 같은 책 p.171.

(46) 鄭漢淑: 위 의적 p.69.

내며 모든 개화 운동이 결국은 현실 생활의 단단한 기반위에서만 존립 가능하다는 작가의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이러한 의식은 ‘三代’의 구조와 일체가 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의 의식은 눈에 띄게 사회를 떠들석하게 하는 것과는 인연이 없으나, 시대와 역사의 흐름의 밑바닥을 이루는 꾸준한 方向 性을 제시하여 봉건주의, 사회주의, 기독교개화사상 등이 混存하던 당시의 사회를 조화된 현실 생활이라는 求心點에서 受容하고 있는 것이다. ‘三代’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소설이다. 이것에 덧붙여서 구태여 ‘三代’를 우수한 혹은 열등한 소설이라고 하는 자족을 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廉想涉 : 「三代」 韓國文學全集 3卷, 서울, 민중서관, 1958.
2. 김인환 : 「문학의 해석」 서울, 흥성사 1978.
3. 金炳翼 : 「現代韓國文學의 理論」 서울, 一潮閣, 1972.
4. 金允植, 김현 : 「韓國文學史」 서울, 민음사, 1974
5. 金宇鍾 : 「韓國現代小說史」 서울, 선명문화사 1963.
6. 鄭漢淑 : 「現代韓國作家論」 서울 고려대출판부 1976.
7. 金允植 : 「廉想涉」 서울, 문학과지성사, 1977.
8. 金鍾均 : 「廉想涉研究」 서울, 고려대 출판부, 1974.
9. 金松峴 : <三代에 끼친 외국문학의 영향> 現代文學 97호, 서울 1963.
10. 洪思重 : <廉想涉論> 現代文學 107호, 서울, 1963.
11. 조동일 : <赤道의 작품구조와 사회의식> 韓國學報 제8집, 서울, 一志社 1977.
12. 廉武雄 : <植民地的 變貌와 그 限界> 韓國文學 서울, 1966